한국어문상大賞수상

한국어가 있다 2

한국인도 헷갈리기 쉬운 한국어 표현들

容易混淆的韩国语词汇

한국 중앙일보 200만 독자가 열광한 한국어 바루기

한국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루기'팀 지음

민족출판사

한국인도 헷갈리기 쉬운 한국어 표현들

한국어가 있다 2

한국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루기'팀 지음

민 족 출 판 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容易混淆的韩国语词汇.2 / 韩国《中央日报》语文研究所著.—北京：民族出版社，2005.12
ISBN 7-105-07456-6

Ⅰ.容… Ⅱ.韩… Ⅲ.朝鲜语-词汇 Ⅳ.H5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54538号

北京市版权局著作权合同登记号 图字：01-2005-6054
本书由韩国Communicatian Books授权民族出版社独家出版发行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1月第1版 2006年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8 字数：227千字
印数：000 1-3 000册 定价：19.8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64228211；发行部电话：64211734)

이 책에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자주 틀리는 말을 비롯해, 표현이 맞지만 어색한 예문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설명까지 곁들여서 있다. 아울러 한글 맞춤법 해설서에서도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실용적인 예들이 들어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조선족들과 대학 한국어학과 3·4학년 학생, 그리고 한국어 수준이 초급 단계를 넘는 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중앙일보 200만 독자가 이 글에 열광했듯이, 중국 내 한국어 독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한국어가 있다』를 중국에서 펴내며

이 책은 한국 중앙일보가 약 2년 동안 '우리말 바루기' 난을 통해 연재한 것을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엮어 펴낸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자주 틀리는 말을 비롯해, 표현이 맞지만 어색한 예문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끝부분에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다. 아울러 한글 맞춤법 해설서에서도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실용적인 예들이 들어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조선족들과 대학 한국어학과 3·4학년 학생, 그리고 한국어 수준이 초급 단계를 넘는 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중앙일보 200만 독자가 이 글에 열광했듯이, 중국 내 한국어 독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2006년 1월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추천사

현대 사회에서 신문과 방송은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말과 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어떠한 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한 번 쓰인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 일상적인 말로 자리 잡기도 한다.

신문, 방송이 언어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막대한 영향력이 있기에 책임 또한 막중하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일보가 '우리말 바루기' 난을 만들어 2년 가까이 올바른 우리말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온 것은 무척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에서 우리말을 갈고닦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우리말과 글은 민족 정신이 담겨 있는 그릇이다. 이 책에도 그러한 정신을 담고자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립국어원
원장 남기심

책을 펴내며

우리말과 글을 바로 쓰는 데 누구나 관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2003년 3월 중앙일보에 연재를 시작한 '우리말 바루기'는 약 2년간 442회를 이어왔다. 문법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씀으로써 독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맞춤법 해설서 같은 느낌을 주는 기존 글들과 차별화하겠다는 초기의 방향 설정이 독자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 중앙 일간지 중 유일하게 우리말 고정란을 마련해 매일 아침 독자와 함께했다는 점에서 많은 격려와 상을 받기도 했다.

칼럼의 소재는 일반인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잘못 알고 있거나 헷갈리기 쉬운 것을 골랐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외국어, 생활 속에 파고든 일본말이나 일본식 한자어도 다루었다. 또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 알리려고 노력했으며, 문장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말 바루기'의 특징은 널리 사용하는, 살아 있는 예문에 있다. 정형화된 것은 피했다. 그렇기에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한국어가 있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어 내려고 한다.

문화관광부 의뢰로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서울 거주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2002년 9월)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국어 능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외국어 능력만 중시함으로써 우리말과 글을 홀대하고, 인터넷 언어다 외계어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국어를 파괴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국어의 장래가 참 걱정스럽다.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다. 한국어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창조해 온 바탕이었다.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

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터넷 시대에도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학적 우수성이 빛나고 있다. 한국이 인터넷, 나아가 정보기술(IT) 강국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138개라고 한다. 세계적 민간연구기관인 월드워치는 세계 언어 중 50~90%가 금세기 말께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스스로 가꾸지 않는 언어는 외국어에 밀려 사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제8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즉 글쓰기 실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도 수능시험 성적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글쓰기·논술이 학생 선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어가 있다』가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글쓰기 능력과 논술 실력을 향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우리말 바루기'를 아껴주신 중앙일보 독자와 『한국어가 있다』를 펴내는 데 정성을 다해 준 커뮤니케이션북스의 박영률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05년 3월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 바루기' 팀

이정근, 최성우, 배상복, 한규희, 김준광, 김형식, 김승욱, 권인섭, 이은희

차례

『한국어가 있다』를 중국에서 펴내며
추천사
책을 펴내며

■ 제1부 바른 말과 글이 실력이다

01 바른 표현, 건강한 글

'해방'과 '광복' 4 '웃긴' 영화 5 재원(才媛) 6
'대북관'인가, '북한관'인가 7 정상 정복과 등정 8
'두리뭉실' '두리뭉수리'(?) 9 혼신을 쏟다(?) 10 무얼 더 바래(?) 11
대단원 12 영부인 13 망년회 14 토씨에도 신중을…… 15
나더러 어쩌라고? 16 나염 스카프? 17 난이도(難易度) 18
'~에 대해'를 줄여 쓰자 19 '이/가' '을/를'을 줄여 쓰자 20
'~적'을 줄여 쓰자 21 '내지'를 줄여 쓰자 22 바라겠습니다(?) 23
'띠다'와 '띄다' 24 '아니오'와 '아니요' 25 '사죽'을 못 쓰다(?) 26
'획정'과 '확정' 27 '지향'과 '지양' 28 '최대'와 '최다' 29
'돋히다'와 '돋치다' 30 '삐지다'와 '삐치다' 31 '~ 마라'와 '~ 말라' 32
'같소'와 '같으오' 33

02 틀리기 쉬운 말

'장진'과 '장전' 36 '간질이다'와 '간지럽히다' 37
'울궈내다'(?) '울궈먹다'(?) 38 '넉넉지'와 '익숙지' 39 떠벌리지 마라 40
'아니예요'가 '아니에요' 41 기대를 져버리다(?) 42
'반지르르하다'와 '푸름' 43 못지 않는(?) 44 치고받다 45
비표준어에 딴죽 걸기 46 '닦달'과 '원활' 47 외곬으로 48
'허락'과 '승낙' 49 '게슴치레'(?) 거슴푸레(?) 50 '연방'과 '연거푸' 51
'눈살'과 '눈썹' 52 몇일(?) 53 '눌은밥'과 '눌어붙다' 54

보약 '다리기'(?) 55 분수에 걸맞은 소비생활 56
'가능한'과 '가능한 한' 57 자문 58 빨강색/빨간색, 빨강 59
'과녁'일까, '과녘'일까? 60 표식(?), 횡경막(?) 61

03 말을 가려 써야 뜻이 통한다

'욕지기'와 '욕지거리' 64 '홑몸'과 '홀몸' 65 '그슬리다'와 '그을리다' 66
납량하는 사람들 67 까지/조차/마저 68 2분의 1 이상>과반수 70
'함께하다'와 '함께 하다' 71 '임대'와 '임차' 72
'꾀하지 마라' '꿰고 있다' 73 '승패'와 '성패' 74 '피난'과 '피란' 75
'회계 연도'와 '신년도' 76 '안치다'와 '무치다' 77
'벌써'와 '벌써부터' 78 옥새와 옥쇄 80 '부딪다'와 '부딪치다' 81
'유례'와 '유래' 83 사열 받는 대통령(?) 84 '띠다'와 '띄우다' 85
'여부'와 '유무' 86 '치켜세우다'와 '추어올리다' 87
'휘바람'과 '휘파람' 88 '이따가'와 '있다가' 89
'-로서'와 '-로써'는 헷갈려 90 주인공과 장본인 92
새침데기 그녀 93 '바라다'와 '바래다' 94 딸려송(?) 95
'깃들다'와 '깃들이다' 96 자리 매김 97 과속 딱지를 뗐다(?) 98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9 '사사(師事)'와 '사숙(私淑)' 100
접수하다 101 '둘러싸다'와 '둘러쌓다' 102

04 말에도 따라야 할 법이 있다

삼촌과 서방님 104 호칭과 예절 105

신소리 선소리 106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107 '못'의 띄어쓰기 108
복합어와 띄어쓰기(1) 109 복합어와 띄어쓰기(2) 110
복합어와 띄어쓰기(3) 111 "한번 해 보자" 112
'~ 되다'를 줄여 쓰자 113 명사형 만들기 114 다디단 다방 커피 115
띄어쓰기 원칙 116 '만'의 띄어쓰기 117 '지'의 띄어쓰기 118
'데'의 띄어쓰기 119 '뿐'의 띄어쓰기 120 '맨 처음'과 '맨손' 121
'대단한 걸(girl)'이라니 122 '간(間)'의 띄어쓰기 123
단음절 명사의 띄어쓰기 124 '이 같은'과 '이같이' 125 '안'과 '않' 126
'머지않아'와 '멀지 않아' 127 장희빈과 '서오릉' 128 물렀거라 129
바꼈다(?) 130

■ 제2부 말 속에 삶이 있다

01 말과 생활

방짜 유기 134 내 성을 찾아주세요 135 '학여울'의 발음은? 136
헬스 다이어트(?) 137 '십리'는 몇 km? 138 '가엾은'과 '가여운' 140
힘이 되는 구절 141 당기다/댕기다/땅기다 142 '상채기'는 '생채기'로 143
단출하다 144 담배를 피다(?) 145 '쇠고기'와 '소고기' 146
수육/편육/제육 147 김치 속(?) 148 '먹거리'냐, '먹을거리'냐 149
'식혜'와 '식해' 150 미망인 151 '명란젓'과 '창난젓' 152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02 말과 음식

'가래떡'과 '공비처' 154 해콩/햇과일/햅쌀 155 '국물'과 '멀국' 156
'올갱이'와 '다슬기' 157 전어 세꼬시(?) 158 '피자집'과 '맥줏집' 159
두루치기 160 호두과자 161

03 말과 문화

떡값/촌지/뇌물 164 마침맞다 165 알콩달콩 166 주접떨다 167
"애기야, 가자"(?) 168 외동이(?) 169 '쌉싸름한' 맛 170
님은 갔습니다(?) 171 발목을 접(겹)질렸다 172 날으는(?) 작은 새 173
'곁불'과 '겻불' 174 '꼬시지' 말고 '꼬여라' 175 "대박 터졌다" 176
발자국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177 '앙증맞다'와 '수라간' 178
난들 어쩌겠어? 179

04 말과 자연

뻐꾸기/꿀꿀이 182 보리밭의 옛 추억 183 반딧불이 184
눈부신 햇빛, 따가운 햇볕 185 '야트막한'과 '나지막한' 186
'파라네'와 '파래지다' 187 살을 에는 추위 188
'크고 맛 좋은 갈치' 189 '갯벌'과 '개펄' 190

■ 제3부 우리말의 지평을 넓히자

01 외래어

'트레킹'과 '트래킹' 194 '컬러'와 '칼라' 195 비박 196
그라운드를 누비다(?) 197 셀프-서비스 198 쿠테타(?) 199
선택사양 200 '세모'와 '세밑' 201 '공쿠르'와 '콩쿠르' 202
'소라색' 좋아하세요? 203 안티커닝 204 선팅(?) 205
지프와 바바리 206 올인 207 '미이라'와 '링게르'(?) 208
스프링쿨러(?) 209 핸드폰/휴대폰/휴대전화 210
영어식 진행형, 과거완료의 남용 211

02 어원

뜨거운 감자 214
'노들길'과 '노들강변' 215 삼복더위 216 여우비 217
알아야 면장을 한다(?) 219 '떼논/따논' 당상(?) 220

03 한자성어

야반도주/동병상련 222 혈혈단신/이판사판 223
생사여탈권(?) 224 부부 금실 226

찾아보기 227

제1부

바른 말과 글이 실력이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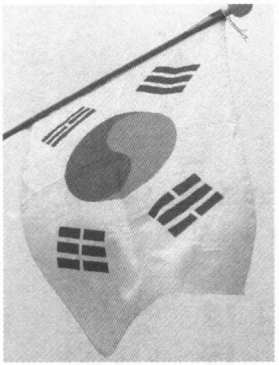
바른 표현, 건강한 글

'해방'과 '광복' 4 '웃긴' 영화 5 재원(才媛) 6 '대북관'인가, '북한관'인가 7 정상 정복과 등정 8 '두리뭉실' '두리뭉수리'(?) 9 혼신을 쏟다(?) 10 무얼 더 바래(?) 11 대단원 12 영부인 13 망년회 14 토씨에도 신중을…… 15 나더러 어쩌라고? 16 나염 스카프? 17 난이도(難易度) 18 '~에 대해'를 줄여 쓰자 19 '이/가' '을/를'을 줄여 쓰자 20 '~적'을 줄여 쓰자 21 '내지'를 줄여 쓰자 22 바라겠습니다(?) 23 '띠다'와 '띄다' 24 '아니오'와 '아니요' 25 '사죽'을 못 쓰다(?) 26 '획정'과 '확정' 27 '지향'과 '지양' 28 '최대'와 '최다' 29 '돋히다'와 '돋치다' 30 '삐지다'와 '삐치다' 31 '~ 마라'와 '~ 말라' 32 '같소'와 '같으오' 33

'해방'과 '광복'

손바닥에 얼음을 놓고 불을 붙이면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나 손은 뜨겁지 않고 얼음 녹은 물만 흘러내린다. 이 신기한 얼음 형태의 물질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다.

울릉도·독도 주변의 해역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근래 들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이 잦은데, 일부에선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독도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요한 이웃이다.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난날의 국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방'과 '광복'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 보자.



8·15는 '해방'이 아니라 '광복'입니다.

'해방(解放)'은 '구속이나 억압·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8·15 해방'이란 말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가운데 몇몇 강대국의 도움으로 압제에서 풀려났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반해 광복(光復)은 '잃었던 나라나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8·15 광복'이란 말에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되찾았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한일합방(韓日合邦)'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합쳐 한 나라를 구성한다'는 뜻으로,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편입하면서 그 행위를 미화한 말이다. 당연히 '한일병합(韓日併合)'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더해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봐야 할 것이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